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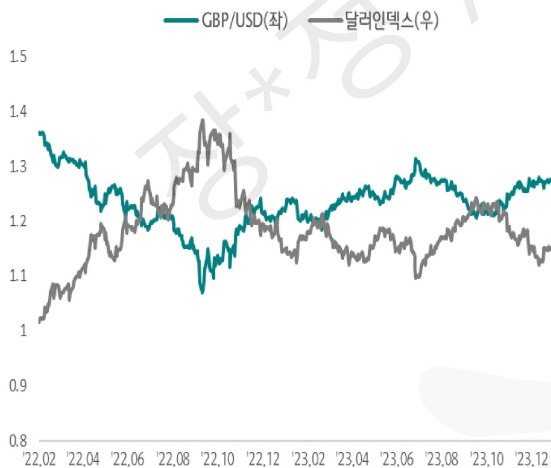
(2024.01.18)

하나은행 자금시장영업부

I. 2023년도 파운드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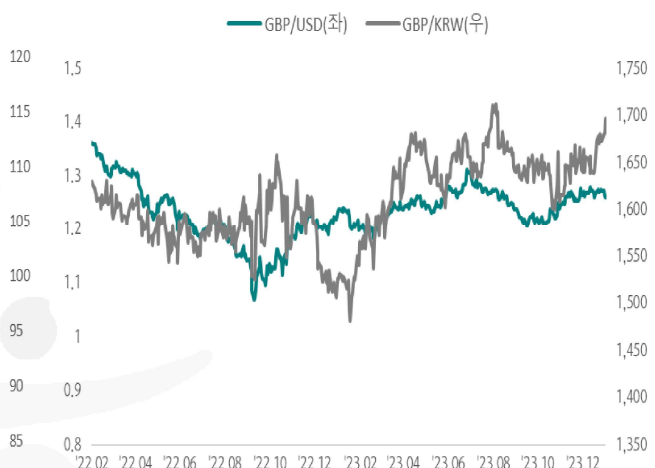
- 파운드는 최근 영국 경기침체 우려에도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연준 긴축 정책 완화 기대를 반영하며 1.2달러선을 상회하는 움직임 시현
 - '23년 상반기,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에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부상하면서 달러 약세 기조가 형성. 반면, 영국의 경우 CPI가 10%대에 머무르는 등 높은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되며 BOE의 긴축 정책에 대한 의지가 부각된 영향으로 파운드는 강세 시현. 그러나 BOE의 강한 매파적 기조가 영국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상충하면서 상단이 제한된 양상
 - 이후 미국 6월 CPI가 3.0%로 둔화되며 시장 내 연준 긴축 완화 기대가 강하게 유입되자 달러인덱스는 100선을 하회하였고, GBP/USD 환율은 1.31달러로 연중 최고점을 기록. 하지만 불안정한 영국 경제 상황 속 BOE의 금리동결 결정으로 파운드는 약세 추세로 전환했으나, 연준 인사들의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와 위험자산 선호 회복에 반등하며 1.2달러 후반 수준에서 등락

<그림 1> GBP/USD, 달러인덱스



자료: 인포맥스, 하나은행

<그림 2> GBP/USD, GBP/KRW



자료: 인포맥스, 하나은행

II. GBP/USD 및 GBP/KRW 환율 중단기 전망

1) 파운드 방향성 관련한 리스크 요인 점검

- (경제상황) 영국 '23.12월 CPI가 전년 대비 4.0%로 반등하는 등 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가운데 여전히 목표 2%를 상회하며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기록. 한편, '23.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기 위축을 내포. 물가 둔화에 따른 구매력 회복 등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4년에도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주요국 대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통화정책)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는 높아진 반면, BOE는 '23.8월 이후 기준금리를 5.25%로 유지하였고 상대적으로 매파적 스탠스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 영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되긴 하나, 지난 금리인상 파급효과로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지표도 완만한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고려 시 연준보다 다소 늦게 금리인하 시작할 것으로 판단

2) 파운드 환율 중단기 전망

- (GBP/USD) 미국 경제는 강한 통화긴축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고용시장과 소비 등을 기반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영국 경제의 경우 부진한 모습 이어지는 측면이 상대적 파운드 약세를 견인할 요인. 그럼에도 연준 통화정책 전환 기대를 반영한 달러의 추세적 약세 기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연준의 금리인하 시작 시점에 파운드 강세 보일 전망. 다만, BOE 또한 부진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연준에 이어 긴축 기조를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파운드/달러 환율 상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
- (GBP/KRW)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세에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글로벌 달러 약세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파운드와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특히 원화의 대외적 우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원화에 대한 대내외적 리스크 고려 시 원화 약세 압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후 그 양상을 되돌림할 것으로 예상. '24년 중반까지의 중기적 관점에서는 국내 경제의 더딘 회복세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등에 의해 원화의 전체적 강세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전망. 이에 파운드/원 환율은 단기적으로 1,680~1,720원 레인지가 예상되며 중기적 관점에서 1,650원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